

실족에 대한 경고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구절: 마가복음 9:42-50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5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48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1. 실족하게 하는 원천: 다른 사람과 자신

가. 실족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 복음의 세 복음서에 기록될만큼 제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말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되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원천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신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2 절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심으로 그 잘못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사탄의 제자들과 그의 사주를 받은 악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잃어 버리고 죄에 탐닉하도록, 세상의 소욕을 추구하는데 전념하도록,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잃어 버리도록 유혹하고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일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수행합니다. 이런 자들의 종말은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이 바다 깊은 곳에 빠져 바다 고기의 먹이감이 되는 육신처럼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2]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나. 한편, 주님께서서는 43 절에서 48 절까지 우리의 육신의 일부가 우리 영혼을 실족하게, 즉 구원을 잃을 만큼 큰 죄를 범하게 한다면 차라리 이를 찍어 내어 버리더라도 구원을 지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 (43 절), 발(45 절), 그리고 눈 (47 절)을 잃는 것이 구원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지음으로써 구원을 잃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동기와 목표를 주님의 뜻과 가치관에 맞추어서 성전된 우리의 몸이 죄로 향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5:24]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 구원 영속성 교리와 지옥

가. 한번 구원 받았으면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예정론은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옳지 않은 교리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탕자처럼 자의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 즉 마귀의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런 자녀가 돌아 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돌아 오지 않는 ‘죽은’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자녀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나. 사도 베드로 역시 한번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오염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그들의 종말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고, 즉 그들이 지옥의 저주에 남아 있게 됨을 경고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 들이고 구원을 받은 후에 죄악에 빠지게 되면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으리라고 하여,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경고와 동일한 경고 말씀을 그의 서신에 쓰신 것입니다. 즉,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하여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구원 영속성의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20-21]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다. 주님께서는 지옥을 표현하시기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세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44 절, 46 절, 48 절]. 주님의 이 표현은 이사야 66 장 24 절의 표현을 빌린 것으로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자신의 사체를 먹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벌레가 가하는 고통, 그들의 살과 뼈를 태우는 불의 고통과 타는 냄세를 맡으면서 영원한 형벌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번이나 강조하셨으니 우리가 지옥의 처절한 무서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24]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샅군 목회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이러한 경고의 말씀 하기를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러한 형벌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본문에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고의 말씀을 알고서도 선포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의 영혼들이 미혹되어 실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 죄악의 댓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라.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지옥에 영원토록 두시지 않을 것이며, 충분히 회개하면 지옥에서 연옥같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천국으로 이전하도록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육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옥에서 느끼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므로 지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 견해와 교리들을 전하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을 미혹하여 죄에 머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옥에 가도록 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은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 후에야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3. 소금과 불의 절대 필요성

가. 주님께서서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이생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소금과 불로 정제될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식품에 뿌려질 때에 세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순전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소금이 식품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성분과 화학 반응을 하여 중화 시킴으로써 그 식품을 순전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소금은 식품을 오래 보존하게 합니다. 셋째로, 소금이 뻣뻣한 채소에 뿌려진 후 얼마 지나면 채소가 부드럽게 변하는 것은 주부들이 김치 담글 때에 모두 경험하는 소금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humble & pliable] 만들며, 진실되고 순전하게 만들며 [true and pure], 이 험한 세상에서 잘 견디게 [enduring] 만듭니다. 그런 성도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피하게 하며 능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왕국으로 가게 만듭니다.

나.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그 인생 속에 있는 여러 추잡하고 악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닌 채로 인생을 마치게 되니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하늘 왕국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들을 모두 소멸하는 '불의 경험'을 하여야만 지옥을 능히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3:11]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베드로전서 1:7]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제사의 희생물은 흠 없이 순전해야 했고, 그 희생물을 제단에 태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제사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 희생물로서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헌물이 될 것입니다.

4. 성화된 자녀들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 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엄격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 우리가 알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손발이나 눈을 잃더라도 하늘 나라로 받아들이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손발이나 눈이 없는 희생물은 받아 들이지 못하는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에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부분을 잘라 낸다면 하늘 왕국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나. 이 주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또한 읽게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과 가슴 속에 소금과 성령의 불을 지님으로써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성령과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돌리고자 하는 선하고 강한 결심을 갖게 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들을 도우시어 그들이 실족시키는 자, 마귀의 꾀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